

수입꿀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수입꿀 원산지표시 단속은 우리 양봉농가 스스로가 앞장서야 할 때 -

본 협회는 국내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한·미 FTA, EU 등 수입 천연꿀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이제는 이를 위해 양봉인 스스로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최근 각 나라별 FTA 자유무역협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본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더불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또한 그간 밀수 및 수입꿀이 국내에 잠식되어 원산지표시제의 위반이 심각함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 7월호에도 발표한 바와 같이 악덕업자와 일부 생산농가까지도 가세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그동안 협회 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협회 자체의 힘만으로 밀수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이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악덕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기 마련으로 우리 양봉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수입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참여하여 불법 수입 꿀이 국내 천연꿀 시장에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우리의 천연꿀 시장을 지켜나갑시다.

우크라이나 양봉관련단체 초청 협의

작년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양봉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이 성사된 가운데,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10박 11일동안 20여명의 한국 대표단들이 현지에 다녀왔다.

현지에서 우크라이나측의 성대한 환영을 받고 온 본 협회는 이번 기회에 상호 양국의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를 위해 우크라이나 양봉단체 대표단들을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초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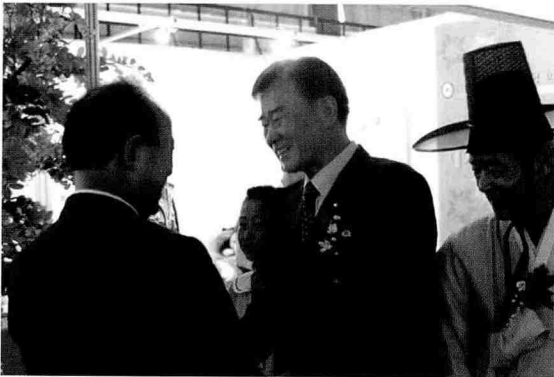
이번 초청행사를 위해 지난번 우크라이나 초청행사에 참석했던 한국 대표단들과의 협의 결과, 이번 행사는 본 협회 주관으로 약 20여명을 초청하여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초청에서는 양국 기술교류 행사를 위해 관련 심포지엄과 양봉산물 및 사양기구 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2007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성료

곤충들의 축제인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지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예천군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곤충들의 축제인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지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예천군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엑스포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 농업으로서 곤충바이오산업을 제시하고자 이러한 곤충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하여 곤충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 김수남 예천군수가 양봉 홍보 부스 방문



▶좌측부터:안영호 예천군분회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전기현 회장

곤충을 테마로 총 60여종의 다양한 곤충들이 전시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호박벌, 머리빨가위벌, 호랑나비, 메뚜기, 무당벌레, 물방개,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하늘소, 딱정벌레, 귀뚜라미, 여치 등이 있었다.

우리 꿀벌도 예천군 분회를 통해 이번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새롭게 제작된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사로잡기도 했다.

특히 꿀벌은 화분매개를 통해 인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협회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 꿀벌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본 협회 전시 부스 내에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

살충제 연막소독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조풍도 회원(경남 함안군 법수면)

이 기사는 살충제 연막소독으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고,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게재 되었다.

꿀벌들은 나무열매나 인류의 먹거리(오곡)들이 꽃이 피면 벌떼들이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채취하려 화분매개 작업을 하게 된다. 나비나 야생매개충이 있었으나 거의 사라져 꿀벌이 유일한 화분매개충으로 남아 있다.

전국 어디서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모기잡이 혹은 재선충 살충제 연막 또는 헬리콥터 공중살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실제 벌떼들의 피해사례가 발생되면 해당 시·군 방역 담당 직원은 살충제 비율을 약하게 처리함으로 방역에 의한 피해를 줄인다는 답변만 되돌아오기에 우리 양봉농가로서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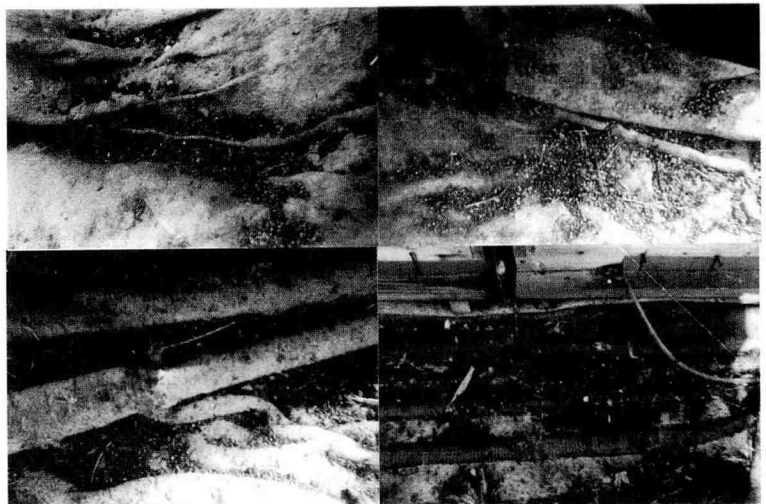
행정부서에서는 살충제 연막소독 혹은 공중살포가 있을시 양봉농가에 반드시 사전 통보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된 결과로 인한 피해발생의 책임추궁이 법제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정보공개 조례 신청이 당일 받아볼 수 있어야 함에도 두세번 찾아가야 하는 실무자의 무성의한 민원처리가 없어야 하겠다.

마을 모기잡이 살충제 연막소독도 많은 벌을 옮길 수 있는 형편일 때, 즉 오후 늦게 일벌들의 작업이 끝나고 모기의 활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방역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해충인 모기는 야행성과 인축의 호흡로 존속보전의 생존 방식인 반면, 꿀벌은 모기와 판이한 낮에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의 과정이 있어야만 꿀과 꽃가루가 분비되는 식물과의 공생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풀면 해법은 쉽다.

앞으로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침착한 직무수행의 역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 살충제 방역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연막소독 피해로 꿀벌이 폐사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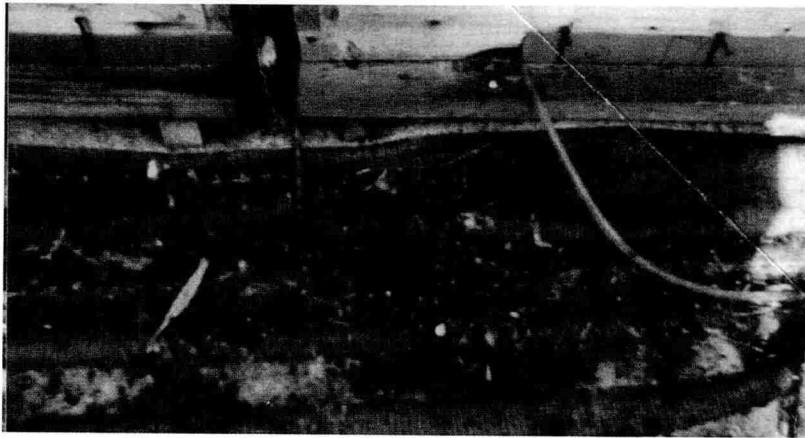
충남 논산서 꿀벌 400군 폐사

지난 8월 15일경 충남 논산시 송창근 회원은 본인이 양봉을 하고 있는 연산면 지역 일대에서 꿀벌 400여군이 폐사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상한 것은 양봉장 주변에 오·폐수도 없고, 토종벌을 하는 양봉인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군수가 한꺼번에 폐사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은 송회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송회원은 이번 사건이 양봉업을 잘 아는 자가 의도적으로 에프킬라를 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양봉업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양봉인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원/지회장 연석회의 개최

지난 7월 20일에 개최된 임원회의와 지회장 연석회의에서는 오는 10월경 충북 보은군에서 개최될 제35회 양봉인의날 행사건과 9월에 호주에서 있는 세계양봉대회를 겸한 해외연수교육의 건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양봉인의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충북지회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보은군의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보은군에서는 우리 양봉인의날 행사뿐만 아니라 10월경에 속리산축제, 단풍축제, 대추축제, 한우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축제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지 행사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애초에 임원들이 의도했듯이 행사 내용은 양봉인의날 자체행사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봉인의날 행사는 1박 2일동안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체육행사와 세부행사를 계획 중이며,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에 있을 호주 해외연수교육은 각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의 교육생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50% 자부담으로 교육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협에서는 해외연수교육과는 별도로 세계양봉대회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100% 자부담으로 해외연수교육과 비슷한 시기에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